

# 경제 동향

- 요약
- 경기 생산/출하·재고 순환/소비/물가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78.0(200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중공업과 경공업이 각각 9.5%, 0.8%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3.0% 감소하여 감소세가 둔화됨(6월:-8.5%)</li> </ul> </li> <li>○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2,31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판매액은 0.8% 증가하고, 대형마트는 4.9%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8% 증가함(6월:9.0%)</li> </ul> </li> <li>○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1%로 소폭 상승하여, 지난 5년간 서울의 8월 평균 물가상승률(0.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li> </ul> </li> </ul>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경제활동참가를 전년동월비 포함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5%p 증가한 62.8%로 남자는 75.1%, 여자는 51.2%임</li> </ul> </li> <li>○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증가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494만6천명으로, 4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li> </ul> </li> <li>○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한 3.8%로,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0.7%p)는 6월 이후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li> </ul> </li> </ul>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8,90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8% 감소함</li> <li>- 발주자별로 보면 재개발주택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81.7% 감소하였으며, 재건축주택, 사무실·점포 부문의 발주는 증가하는 한편, 신규주택 및 재개발주택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6.5% 증가함</li> </ul> </li> <li>○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0.2%p 감소함</li> <li>- 8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2% 상승하였으며,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전월대비 0.3% 상승하고, 아파트는 0.2% 상승함</li> </ul> </li> </ul>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389조 3,264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2,077억 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7조 4,930억원)보다 소폭 축소됨</li> </ul> </li> <li>○ 서울의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9.5%(144개) 증가한 1,654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8.5%로 나타남</li> </ul> </li> <li>○ 서울의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61개) 보다 2개 증가한 63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함</li> </ul> </li> <li>○ KOSPI 지수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반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중 KOSPI 지수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 등으로 인해 조정되는 모습을 보임</li> </ul> </li> </ul>

## | 생 · 산 |

## 7월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둔화

## ■ 전국 산업생산 증가세 큰 폭으로 확대

- 7월 전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도 기저효과, 수출호조, 내수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신장세가 크게 확대되어 전년동월대비 14.3% 증가함
- 업종별로는 전년도 지난해 자동차 파업이 있었던 자동차('06.7월: -28.8% → '07.7월 38.1%)가 크게 증가하였고, 반도체 및 부품(26.2%), 영상음향통신(12.4%) 등의 증가세가 지속됨

##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둔화

- 7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78.0(200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3.0% 감소하여 감소세가 둔화됨
- 업종별로 보면 컴퓨터 및 사무기기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타전기기계,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등에서 감소함

## ■ 서울 중공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둔화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9.5% 감소하여 감소세가 둔화됨
- 세부업종별로 컴퓨터 및 사무기기(자동거래단말기, 78.0%) 등이 증가하였고 화학물 및 화학제품(-43.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38.4%), 기타전기기계(변압기, -28.9%) 등 대부분이 감소함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하여 감소세가 크게 둔화됨
- 세부업종별로 종이제품(40.5%), 가죽·가방 및 신발(3.2%), 인쇄출판(1.8%) 등이 증가하였고, 음식료품(-17.6%), 섬유제품(-1.0%) 등은 감소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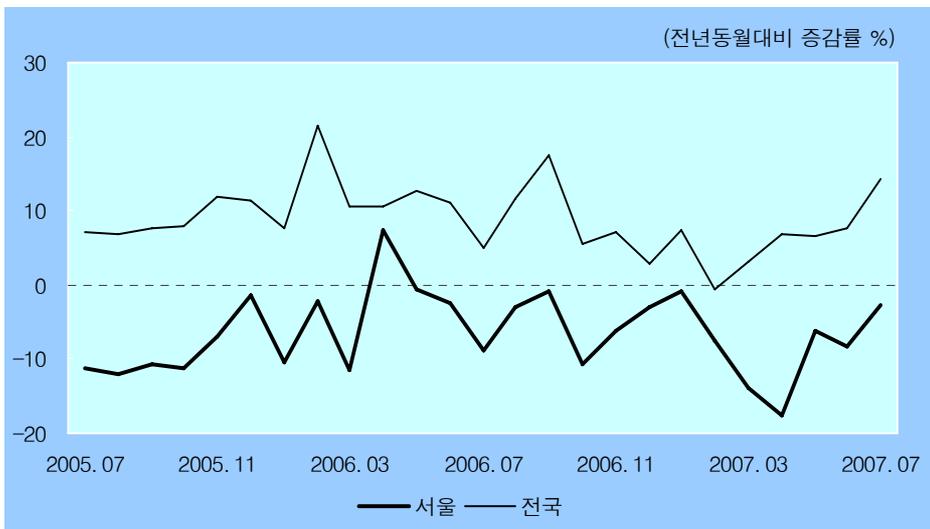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7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전 년 동 월 비	전국	4.9 (-4.0)	3.1 (-0.3)	6.8 (3.2)	6.7 (1.0)	7.7 (1.9)	14.3 (2.1)
	서울 (제조업)	-9.3 (-6.0)	-14.7 (9.8)	-18.8 (7.7)	-6.6 (-8.2)	-8.5 (-4.5)	-3.0 (-3.0)
	중공업	-25.6 (-18.5)	-25.5 (2.9)	-44.1 (29.2)	-10.7 (-16.3)	-13.3 (2.7)	-9.5 (-15.0)
	경공업	-1.7 (0.7)	-10.6 (12.3)	-0.8 (1.0)	-5.1 (-5.0)	-6.5 (-6.9)	-0.8 (5.4)

주: (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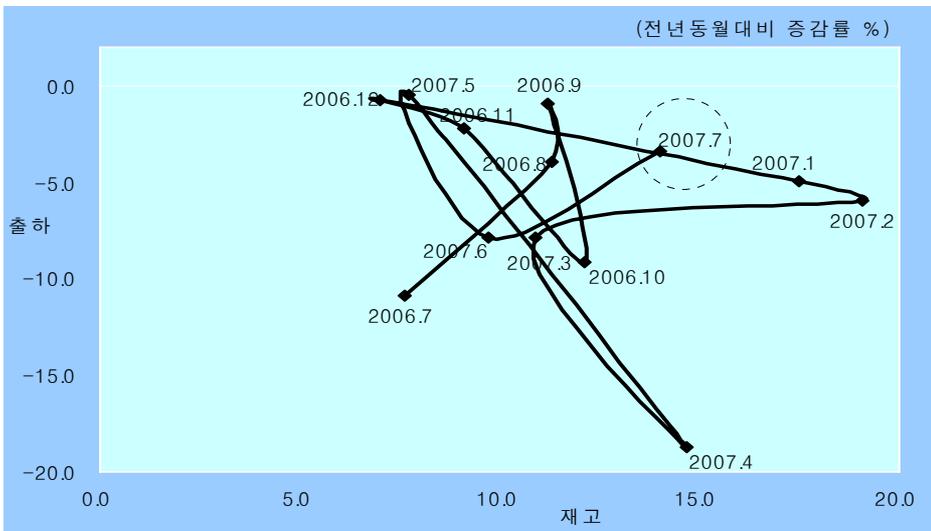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 출하 · 재고 순환 |

7월 서울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세 둔화, 재고 증가세 확대
  - 7월 서울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하고, 재고는 14.0% 증가함
  - 서울 제조업 출하·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출하 감소세가 둔화 되었고 재고 증가세도 확대됨에 따라 불규칙적 모습을 보임
  - 출하·재고 상황은 전체적으로 출하 전년동월비는 상향하고 재고 전년동월비도 상향하여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재고 ↓	재고 ↓	재고 ↑	재고 ↑
출하 ↓	출하 ↑	출하 ↑	출하 ↓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상승

- 7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88.6%로 전월대비 1.9%p 하락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217.6%로, 전월 보다 16.3%p 상승하여 올 들어 최고치를 나타냄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크게(48.2%p) 상승한 265.6%로 최고치를 나타내며 서울의 재고율 상승을 이끌었고, 경공업부문도 7.4%p 상승한 201.4%로 높게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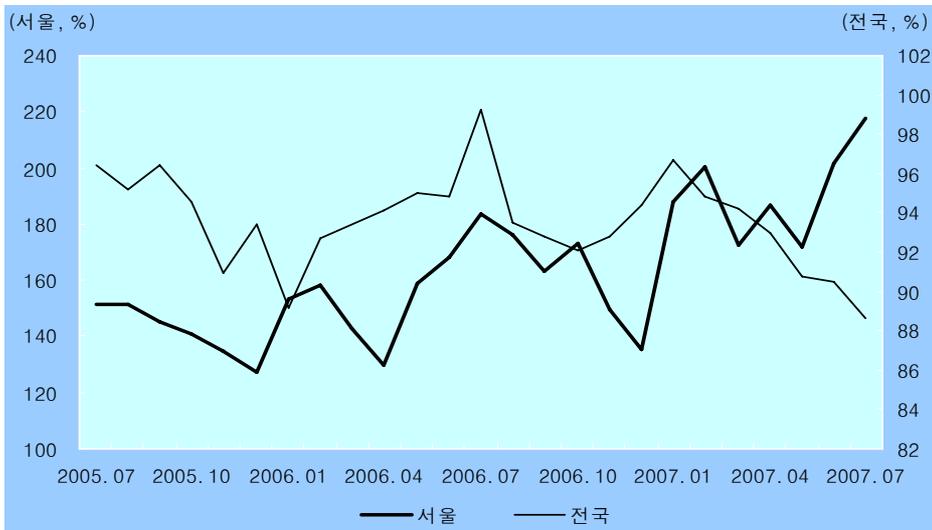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	
	7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재고율	전국	99.3	94.2	93.0	90.8	90.5	88.6	-1.9
	서울 (제조업)	183.7	172.7	186.8	172.0	201.3	217.6	16.3
	중공업	157.3	169.8	226.6	153.8	217.4	265.6	48.2
	경공업	189.9	172.2	172.4	178.5	194.0	201.4	7.4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 소 · 비 |

## 7월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둔화

##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둔화

- 7월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3조 7,80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하여 증가세가 둔화됨
- 백화점은 의복, 음식료품, 가구 등의 판매가 줄어 1.6% 감소함
- 대형마트는 음식료품, 의복·신발,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늘어 4.1% 증가함

##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둔화

- 7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2,31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판매액은 0.8% 증가하고, 대형마트는 4.9%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8% 증가함
- 백화점부분의 경우 바캉스용품 할인행사로 인한 가방 및 운동·오락용품 등의 판매호조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함
- 대형마트부분은 신규사업체 증가 및 바캉스용품 할인행사로 인한 신발, 운동·오락용품 판매호조로 전년동월대비 4.9%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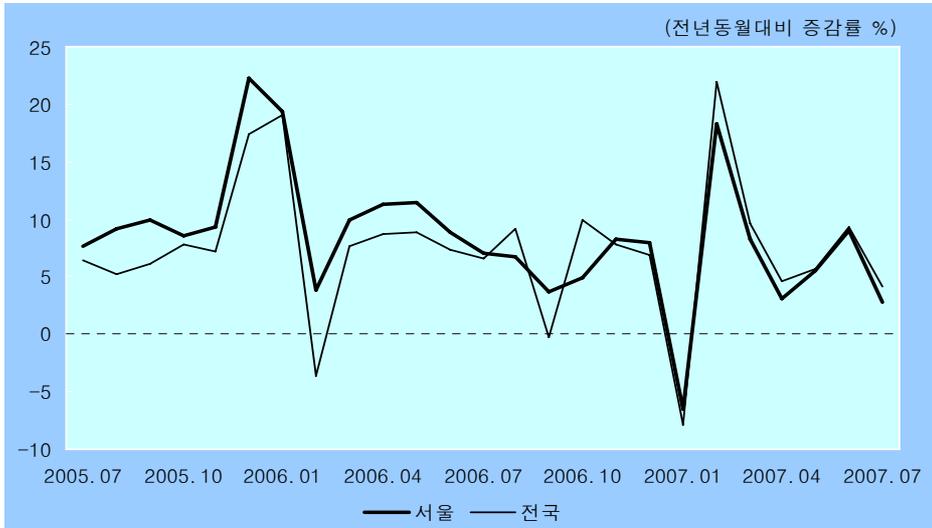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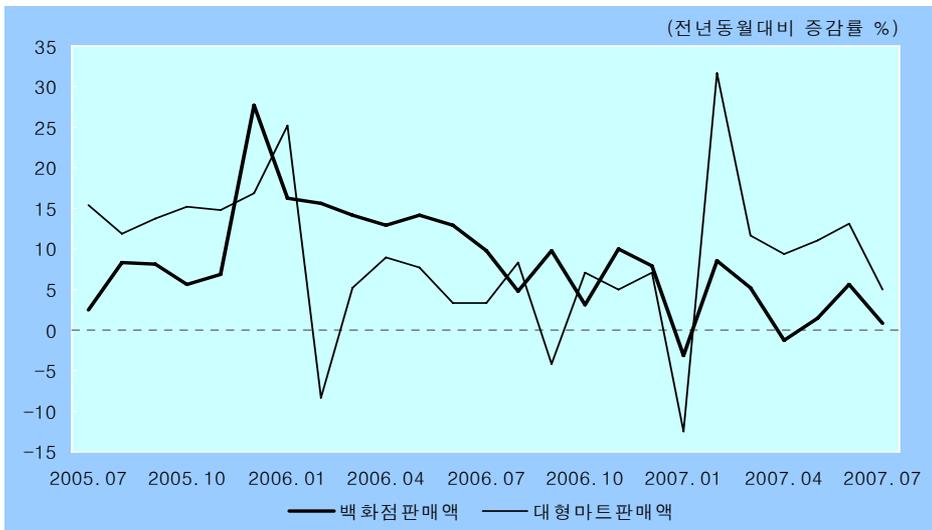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7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판매액	전국	3,632.4 (6.6)	3,887.1 (9.7)	3,838.0 (4.6)	3,921.4 (5.6)	3,665.9 (9.3)	3,780.7 (4.1)
	서울	1,198.0 (7.1)	1,313.0 (8.2)	1,311.6 (3.1)	1,322.4 (5.5)	1,228.9 (9.0)	1,231.0 (2.8)
	백화점	653.4 (9.8)	739.4 (5.2)	750.8 (-1.3)	733.9 (1.5)	658.3 (5.7)	658.4 (0.8)
	대형마트 (할인점)	507.0 (3.4)	525.2 (11.7)	524.6 (9.4)	552.2 (11.1)	536.3 (13.2)	531.8 (4.9)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 물 · 가 |

## 8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8월 전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1%로 소폭 상승함
- 폭염과 호우로 채소류의 출회가 감소되어 농축수산물에 상승하고, 가구류 등 내구재가 올라 공업제품이 올랐고, 집세와 공동주택관리비 등 개인서비스 부문이 상승한데 기인함

##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8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1%로 소폭 상승함
- 전국의 물가상승률(0.1%)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난 5년간 8월 평균 물가상승률(0.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목별로 보면 교통(-0.4%), 교양및오락(-0.3%), 식료품및비주류음료(-0.1%) 부문은 하락하였으나, 기타잡비(1.1%), 가구집기및가사용품(0.9%), 주거및수도광열(0.3%), 주류및담배(0.1%) 부문은 상승함

## ■ 상품부문과 서비스부문 모두 상승

- 상품성질별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부문은 전월대비 0.1% 상승하고, 서비스부문도 0.1% 상승함
- 상품부문을 보면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0.1% 하락한 반면, 공업제품은 가공식품류와 내구재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함
- 서비스 부문을 보면 집세는 전세, 월세 부문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하고,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보였으며, 개인서비스는 공동주택관리비, 콘도미니엄이용료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함

## ■ 신선식품지수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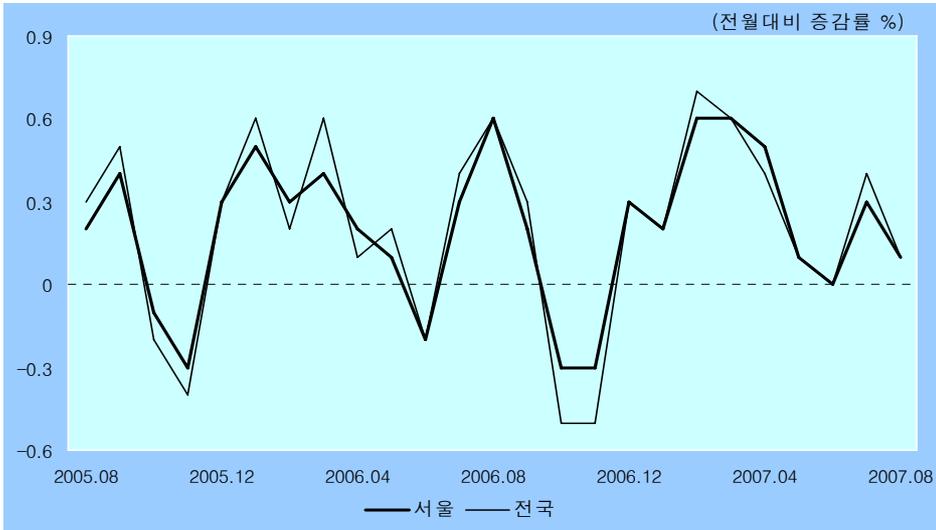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지난달의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됨
- 신선식품지수는 신선채소와 신선과실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지난달(3.7%)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감소함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 월 비	전국	0.6 (2.7)	0.6 (2.2)	0.4 (2.5)	0.1 (2.3)	0.0 (2.5)	0.4 (2.5)	0.1 (2.0)	
	서울	0.6 (2.5)	0.6 (2.3)	0.5 (2.6)	0.1 (2.5)	0.0 (2.8)	0.3 (2.7)	0.1 (2.2)	
	상품 성질별	상품	1.4 (2.3)	0.1 (1.7)	0.5 (1.9)	0.2 (1.5)	-0.2 (1.8)	0.5 (2.1)	0.1 (0.8)
		서비스	0.0 (2.5)	0.9 (2.6)	0.4 (2.9)	0.0 (2.4)	0.0 (3.1)	0.2 (2.9)	0.1 (3.0)
	생활물가	0.8 (3.4)	1.1 (2.6)	0.7 (3.2)	0.2 (3.5)	-0.1 (3.5)	0.4 (3.6)	-0.1 (2.7)	
	신선식품	12.0 (4.7)	-1.8 (2.6)	0.7 (3.4)	-2.7 (4.6)	-3.2 (7.4)	3.7 (10.4)	0.2 (-1.2)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8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비 포함세

##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포함

- 8월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0%(39만6천명) 증가한 3,923만2천명이  
며, 경제활동인구는 1.0%(24만2천명) 증가한 2,421만4천명임
-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으며 남자는 74.2%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자는 49.9%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포함

- 8월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는 81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  
는 514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 증가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5%p 증가한 62.8%로 남자는 75.1%, 여자는 51.2%임
- 반면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함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1.2 (-1.2)	0.8 (1.8)	1.0 (1.6)	1.1 (0.8)	1.1 (0.2)	1.1 (-0.5)	1.0 (-1.4)
	서울	0.0 (-0.9)	-1.1 (0.3)	0.0 (1.1)	0.7 (0.5)	0.2 (-0.3)	1.0 (0.5)	1.1 (-0.8)
	남자	-0.3 (-1.1)	-1.2 (0.4)	0.0 (0.8)	0.4 (0.2)	0.8 (-0.1)	1.1 (0.7)	1.6 (-0.5)
	여자	0.3 (-0.6)	-0.8 (0.2)	0.0 (1.5)	0.1 (0.8)	-0.6 (-0.7)	0.9 (0.2)	0.4 (-1.2)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1.7	61.4	62.3	62.7	62.8	62.6	61.7
	서울	62.3	62.3	63.0	63.3	63.1	63.4	62.8
	남자	74.1	74.5	75.0	75.2	75.1	75.6	75.1
	여자	51.2	50.9	51.7	52.1	51.8	51.8	51.2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 취·업·자 |

8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증가세 지속

## ■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8월 전국의 취업자는 2,345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29만3천명)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의 58.3%(1,367만5천명), 여자는 41.7%(978만3천명)로 남자는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하고, 여자도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0.9%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5.5% 증가함
- 청년층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월(-1.3%)에 비해 감소폭이 0.4%p 감소한 -0.9%이며, 고령층은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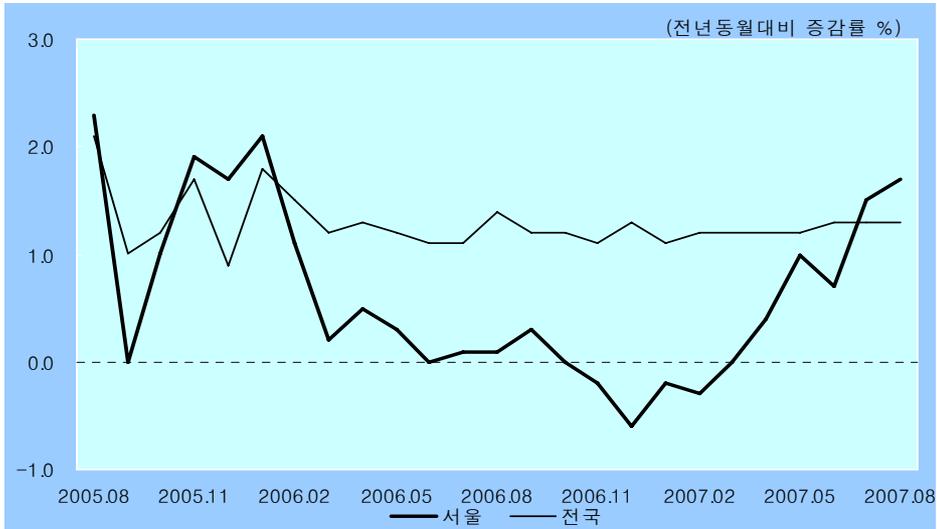
- 8월 서울의 취업자는 494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8만3천명) 증가함
- 전국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서울의 취업자 수는 4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57.6%(284만8천명), 여자는 42.4%(209만8천명)로 전체 취업자중 남자 취업자의 비중은 전국에 비해 0.7%p 낮고, 여자는 전국에 비해 0.7%p 높음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6% 증가하고 여자는 1.9%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남자와 여자의 취업자는 4월 이후 증가세를 보임
- 전체 취업자의 21.5%(106만5천명)를 차지하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여 전국의 감소세와 상반됨
- 전체 취업자의 15.0%(74만5천명)를 차지하는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하여 전월(9.4%)에 비해 전년동월비 증가폭이 축소됨
-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55세에서 60세 사이의 취업자가 7.2% 증가한 것에 비해 60세 이상은 8.7%로 크게 증가함

〈표〉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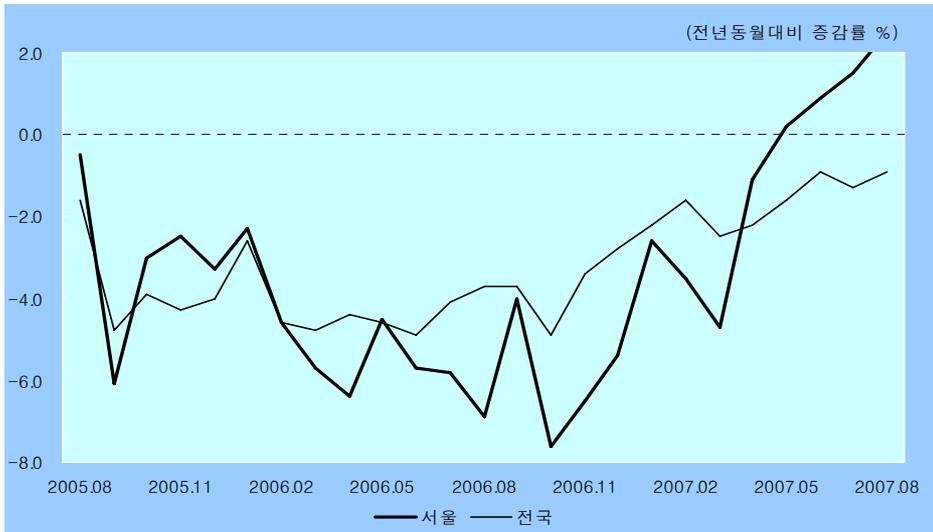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취업자	전국	1.4 (-1.2)	1.2 (2.0)	1.2 (1.7)	1.2 (1.0)	1.3 (0.2)	1.3 (-0.3)	1.3 (-1.2)
	서울	0.1 (-1.1)	0.0 (0.8)	0.4 (1.2)	1.0 (0.8)	0.7 (-0.1)	1.5 (0.3)	1.7 (-0.8)
	남자	0.0 (-1.3)	-0.4 (0.8)	0.2 (0.6)	0.6 (0.9)	1.0 (-0.1)	1.0 (0.4)	1.6 (-0.7)
	여자	0.3 (-0.7)	0.5 (0.7)	0.8 (1.9)	1.6 (0.6)	0.3 (-0.2)	2.1 (0.2)	1.9 (-1.0)
	청년층 취업자	전국	-3.7 (-3.4)	-2.5 (-2.2)	-2.2 (0.6)	-1.6 (1.2)	-0.9 (-0.1)	-1.3 (2.9)
	서울	-6.9 (-3.3)	-4.7 (-2.1)	-1.1 (2.5)	0.2 (1.7)	0.9 (-0.3)	1.5 (1.7)	2.5 (-2.3)
고령층 취업자	전국	4.8 (-0.4)	5.6 (7.2)	6.6 (5.9)	6.6 (3.3)	5.6 (0.2)	5.7 (-2.2)	5.5 (-0.6)
	서울	4.9 (0.5)	6.1 (2.2)	7.7 (3.2)	8.0 (0.9)	5.1 (-1.3)	9.4 (1.5)	8.1 (-0.7)
	55-59세	0.4 (-1.2)	1.6 (3.0)	1.9 (2.3)	4.2 (2.2)	0.4 (-3.2)	5.7 (3.4)	7.2 (0.2)
	60세 이상	8.9 (1.9)	9.9 (1.7)	12.7 (3.6)	11.2 (0.0)	8.7 (0.0)	12.3 (0.2)	8.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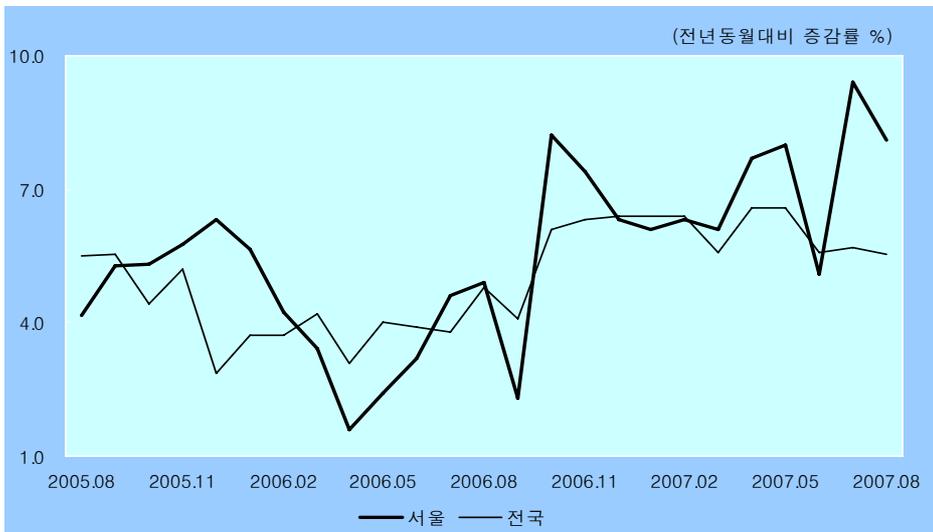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 농림어업,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 감소

- 8월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9.1%)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27.4%), 제조업(13.8%),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0%), 건설업(8.6%)의 순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9.4% 증가하여 전월(10.0%)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며, 이어 건설업(4.5%), 전기·운수·통신·금융업(2.9%)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
- 반면 제조업은 7.5%, 도소매·음식숙박업은 4.0%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지난달(-7.6%)과 비슷함

#### ■ 서비스·판매 종사자 수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8월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31.6%)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28.3%), 서비스·판매 종사자(24.5%), 사무종사자(15.5%) 순임
- 서비스·판매 종사자(-3.8%)를 제외하고, 전문·기술·행정관리자(7.3%), 사무종사자(1.3%)와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1.2%)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함
-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를 나타내며, 지난달(-2.6)에 비해 감소폭(1.2%p)이 확대됨

#### ■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 8월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3.6% (364만2천명), 비임금근로자는 26.4%(130만3천명)로 전년동월대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0.9%p 증가함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0%(10만6천명)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는 1.7%(2만3천명) 감소하여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증가를 기록했던 비임금근로자 수가 다시 감소세로 반전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7.2%)와 임시근로자(-4.2%)는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5.3% 감소하고, 자영업주는 1.1% 감소함

〈표〉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산업별	· 제조업	-3.5 (-2.6)	-11.1 (-1.0)	-6.2 (2.3)	-7.0 (-0.5)	-5.0 (-0.4)	-7.6 (-0.4)	-7.5 (-2.5)
	SOC 및 기타서비스업	0.7 (-0.8)	2.1 (1.0)	1.7 (1.0)	2.6 (1.1)	1.9 (-0.1)	3.2 (0.4)	3.5 (-0.6)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5 (0.0)	6.7 (1.7)	6.0 (1.5)	8.8 (1.7)	9.2 (1.7)	10.0 (0.8)	9.4 (-0.6)
	· 도소매·음식숙박	-1.2 (-1.6)	-2.2 (0.4)	-4.0 (-1.8)	-5.1 (-0.3)	-6.9 (-0.2)	-5.0 (1.7)	-4.0 (-0.6)
	· 전기·운수·통신·금융	1.9 (0.0)	-1.3 (-4.2)	3.4 (5.6)	4.1 (3.0)	4.3 (-1.9)	3.3 (0.7)	2.9 (-0.4)
	· 건설업	-5.4 (-2.4)	1.5 (7.1)	0.4 (2.2)	0.5 (0.1)	-2.0 (-5.2)	2.5 (1.9)	4.5 (-0.5)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7 (-1.0)	1.9 (0.0)	1.7 (1.5)	2.8 (0.5)	7.1 (4.0)	6.2 (-1.4)	7.3 (0.0)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9 (-3.4)	-1.4 (1.3)	-1.7 (2.2)	-1.5 (1.1)	-0.3 (-2.9)	-0.7 (1.7)	1.2 (-1.6)
	서비스·판매종사자	-0.2 (1.3)	-1.2 (2.9)	-0.7 (-1.0)	0.7 (0.1)	-8.8 (-2.1)	-2.6 (2.0)	-3.8 (0.1)
	사무종사자	1.0 (-0.9)	0.4 (-1.9)	4.0 (2.2)	2.9 (1.8)	6.7 (-0.1)	3.1 (-1.3)	1.3 (-2.6)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3 (-2.6)	1.0 (0.2)	1.8 (1.7)	1.9 (0.9)	2.7 (-0.6)	1.6 (0.7)	3.0 (-1.2)
	비임금근로자	-3.0 (3.2)	-2.6 (2.4)	-3.3 (-0.3)	-1.2 (0.5)	-4.5 (1.0)	1.1 (-0.8)	-1.7 (0.3)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 실 · 업 · 률 |

## 8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 전국의 실업률 전월대비 보합세

- 8월 전국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3.1%(실업자 75만6천명)로 전월(3.2%)에 비해 0.1%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5%(실업자 50만1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하였으며, 여자는 2.5%(실업자 25만5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함
- 교육정도별로 보면 중졸 이하는 1.9%, 고졸은 3.7%, 대졸 이상은 3.3%로 고졸의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서울의 실업률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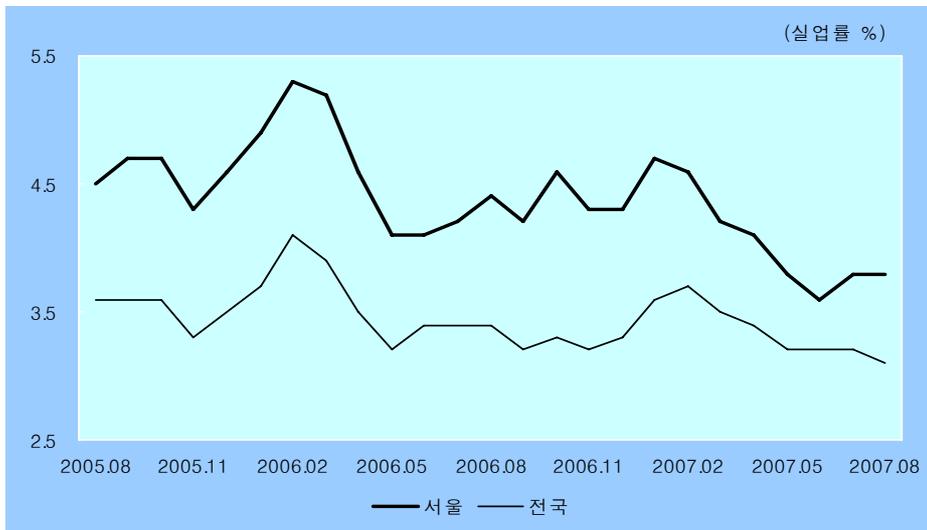
- 8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한 3.8%(실업자 19만8천명)임
- 8월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격차(0.7%p)는 6월 이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며, 지난 5년간 8월 평균 실업률 4.4% 보다 0.6%p 낮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6%, 여자는 2.8%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동일한 반면, 여자는 1.4%p로 큰 폭으로 감소함
- 전국에 비해 남자는 1.5%p 높은 반면에, 여자는 0.3%p 낮은 수준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전국과의 격차가 더 큼
- 남자와 여자의 실업률 격차는 전월에 비해 0.4%p 증가한 1.8%p로, 5월 이후 남자와 여자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음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	3.4	3.5	3.4	3.2	3.2	3.2	3.1	
서울	4.4	4.2	4.1	3.8	3.6	3.8	3.8	
성 별	남자	4.6	4.6	4.8	4.1	4.1	4.4	4.6
	여자	4.2	3.6	3.2	3.4	2.9	3.0	2.8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 건 · 설 · 경 · 기 |

### 7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 전국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7월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6조595억 원으로 공공부문의 증가세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민간주택수주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14.9%의 감소를 보임
-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에서 51.1% 증가하고, 민간부문에서 38.8% 감소함
- 공종별로 보면 토목부문에서 141.1% 증가하고, 건축부문은 38.0% 감소함

#### ■ 서울의 건설수주액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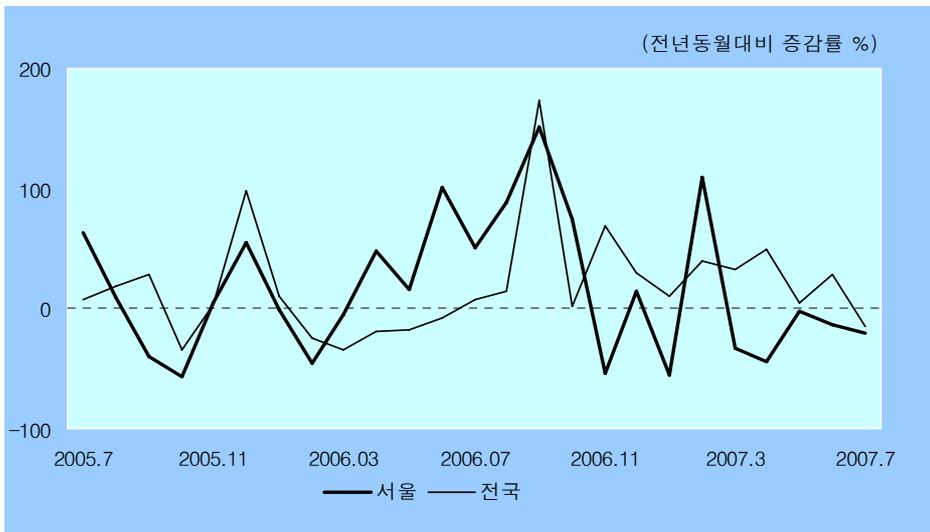
- 7월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8,903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8% 감소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전국의 14.7%를 차지함
- 발주자별로 보면 재개발주택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81.7% 감소하였으며, 재건축주택, 사무실·점포 부문의 발주는 증가하는 한편, 신규주택 및 재개발주택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6.5% 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전체 건설수주액의 98.6%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서 18.7% 감소하였으며, 0.9%를 차지하는 토목 부문에서 74.9% 감소함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국	7,122.8	7,941.9	7,840.6	7,096.3	11,901.6	6,059.5	-14.9	-49.1	
서울	1,110.4	765.1	981.2	1,277.0	2,215.8	890.3	-19.8	-59.8	
발주 자별	공공	304.4	162.0	178.7	15.8	18.6	55.6	-81.7	198.9
	민간	783.7	603.1	802.5	1,171.3	2,139.8	834.7	6.5	-61.0
공종 별	건축	1078.9	654.1	939.8	1,233.6	2,161.9	877.6	-18.7	-59.4
	토목	31.2	103.2	35.4	36.5	46.5	7.8	-74.9	-83.2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07년 8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3,844천㎡로 전년동월대비 87.8% 증가함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연립(221.2%)은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단독도 전년동월대비 33.3% 증가한 반면, 아파트(-13.0%)의 신축허가면적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 8월 대비 13.8% 감소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공업용(-52.6%)만 감소하고, 기타(2331.3%), 상업용(114.7%), 문교 및 사회(49.1%)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98.4% 증가함
- 2007년 8월 신축허가면적이 가장 큰 구는 송파구(987천㎡)로 관광호텔이 581천㎡를 차지함
- 아파트 신축허가면적 역시 송파구가 164천㎡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서울	2,046.7	306.5	5,219.7	4,508.3	3,341.9	3,844.0	87.8	15.0	
주거용	소계	255.3	95.5	304.4	175.0	260.7	290.5	13.8	11.4
	단독	11.1	5.0	15.4	14.9	16.3	14.8	33.3	-9.2
	연립	26.4	68.7	91.7	114.9	141.7	84.8	221.2	-40.2
	아파트	217.7	8.7	196.1	44.1	98.3	189.5	-13.0	92.8
비주거용	소계	1,791.5	210.9	4,915.2	4,333.3	3,081.2	3,553.5	98.4	15.3
	상업	1,396.4	103.3	4,298.3	3,903.3	2,468.3	2,998.2	114.7	21.5
	공업	69.0	84.9	89.7	1.6	109.4	32.7	-52.6	-70.1
	문교/사회	324.5	22.6	465.8	168.0	312.6	483.7	49.1	54.7
	기타	1.6	148	47.0	260.5	177.0	38.9	2331.3	-78.0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포함

자료: 서울시 건축과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8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8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소폭(0.2%) 상승함
- 9월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매수자들이 주택구입시기를 늦추면서 관망세가 지속되어 상승률이 전월대비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임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상승률이 전월대비 소폭(0.1%) 둔화되었으며, 단독주택이 0.2%, 연립주택이 0.5% 상승하여 연립주택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됨

##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8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상승폭이 7월에 비해 0.2%p 감소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에 비해 0.1%p 감소함
- 세부지역별로 강북은 0.4% 상승하고, 강남은 0.3% 상승하여 강북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강남은 7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짐
- 주택유형별로 보면 연립주택이 전월대비 0.6%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은 0.3%, 아파트는 0.2% 상승을 보임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	0.2	0.2	0.1	0.0	0.1	0.3	0.2	9.3
서울	0.4	0.4	0.2	0.1	0.3	0.5	0.3	15.0
아파트	0.3	0.2	0.0	-0.2	0.1	0.3	0.2	16.2
지역별	강북	0.3	0.6	0.5	0.1	0.2	0.5	20.9
주택매매	강남	0.2	0.2	-0.3	-0.4	-0.1	0.1	13.2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도봉구, 은평구

- 강북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 14개 구 중 5개 구가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3%)을 웃돌고 있으며, 이 중 4개 구가 강북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4%)을 상회함
- 도봉구(0.9%)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은평구(0.7%), 노원구(0.5%), 동대문구(0.5%), 강북구(0.4%)의 순임
- 반면 마포구(0.2%), 성북구(0.2%), 중랑구(0.2%), 서대문구(0.1%), 성동구(0.1%), 용산구(0.1%), 중구(0.1%), 종로구(0.0%)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하회함

###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관악구, 구로구

- 강남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11개 구 중 2개 구가 강남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3%)을 상회함
- 관악구(1.0%)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로구(0.4%)가 그 뒤를 이음

###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전월보다 상승폭이 소폭(0.1%p) 감소함
- 강북은 0.4% 상승하고, 강남은 0.1% 상승하여 지난달까지 이어지던 강남은 7월 이후의 상승세가 지속됨
- 구별로 보면 도봉구(1.1%), 강북구(0.6%), 노원구(0.5%), 중랑구(0.5%), 관악구(0.4%), 동대문구(0.3%), 성북구(0.3%)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2%)을 상회함
- 반면 서초구(-0.1%)와 강동구(-0.1%)는 전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하고, 성동구, 강남구, 송파구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보임
-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7% 상승한 1,754만원으로 전월(0.4%)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됨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3508만원), 서초구(2759만원), 송파구(2559만원), 용산구(2385만원), 양천구(2117만원), 강동구(1924만원), 광진구(1836만원)임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구는 도봉구(954만원), 도봉구(947만원), 강북구(937만원), 은평구(928만원), 중랑구(923만원), 금천구(902만원)임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8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세 지속

##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보합세

- 8월중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보합세를 나타냄
- 전반적인 안정세를 지속한 가운데 재개발 및 지역적인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함
- 전세가격 증감률의 장기추이를 보면 7월은 보합세를 보이는 반면, 8월은 가을 이사철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올해 8월은 22년 장기평균인 0.5%를 크게 하회한 0.1%로 예년에 비해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임

##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8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월비 상승폭이 전월(0.3%)보다 소폭 축소됨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이 0.2% 상승하고, 강남도 0.2%로 상승함
- 주택유형별로는 연립주택이 0.3%, 단독주택도 0.3% 상승하고, 아파트는 0.2% 상승하여 매매가격과 동일하게 연립주택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	0.2	0.4	0.4	0.1	0.0	0.1	0.1	5.4	
서울	0.4	0.6	0.5	0.1	0.1	0.3	0.2	7.8	
아파트	0.4	0.6	0.4	-0.1	0.0	0.1	0.2	7.6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0.6	1.0	0.8	0.1	0.1	0.2	0.2	9.1
	강남	0.2	0.3	0.2	-0.2	-0.2	0.0	0.2	6.7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주요 상승지역은 관악구, 도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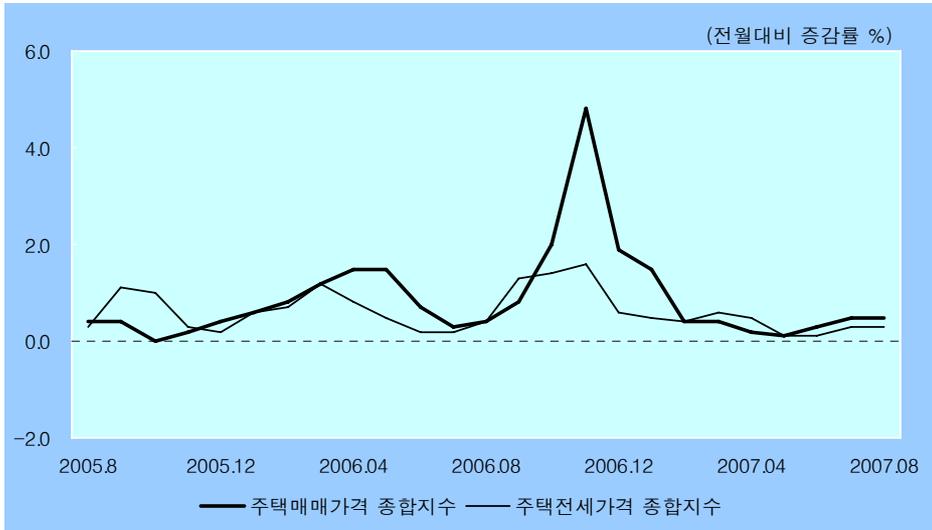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관악구(1.3%)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광진구(0.5%), 도봉구(0.5%), 성북구(0.4%), 양천구(0.4%), 노원구(0.3%), 마포구(0.3%), 구로구(0.3%)에서 서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0.2%)을 상회함
- 서초구(-0.2%)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강남구, 송파구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나타냄
- 관악구는 뉴타운 재개발 계획 및 영어마을 유치 확정 등의 호재로 가격이 상승함

### ■ 아파트 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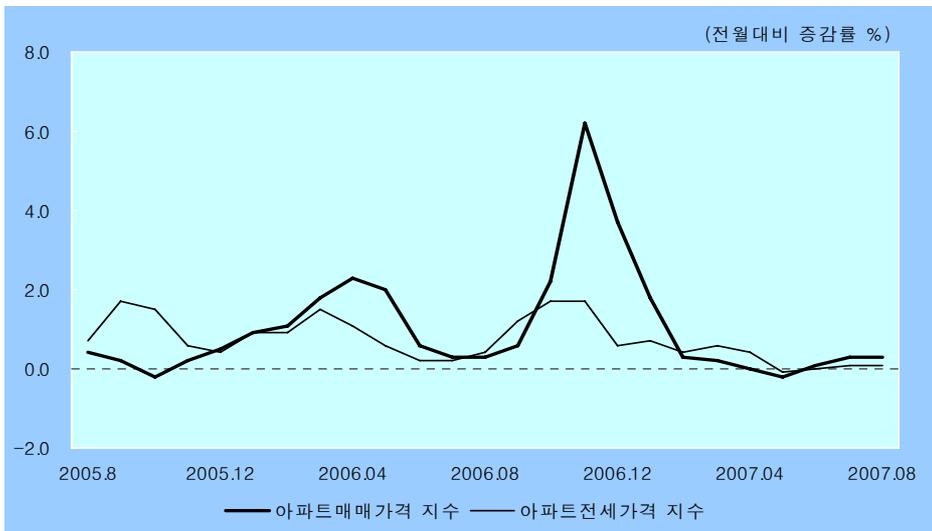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7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감
-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격을 보면 강북은 0.3% 상승하고, 강남은 0.1% 상승함
- 구별로는 도봉구(0.7%)와 양천구(0.6%)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서대문구(0.5%), 노원구(0.3%), 동대문구(0.3%), 은평구(0.3%), 금천구(0.3%), 광진구(0.2%), 강서구(0.2%), 관악구(0.2%), 성북구(0.1%), 종로구(0.1%), 중랑구(0.1%), 강동구(0.1%), 동작구(0.1%)에서 전세가격의 상승률을 보이고, 강북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중구, 강남구, 구로구, 송파구, 영등포구에서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보임
- 반면 서초구는 전월대비 0.3% 하락함
- 8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한 624만원으로 강남구(975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강북구(430만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에 비해 미미한 하락

- 2007년 8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2.9%로 전월에 비해 미미한(0.1%p) 하락을 보이며, 5월(43.2%)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나타냄
- 이는 전국 평균 54.3%를 11.4%p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과의 격차(1월: 11.4%p, 2월: 11.5%p, 3월: 11.4%, 4월: 11.5%, 5월: 11.4%p, 6월: 11.5%, 7월: 11.5%)는 1월 이후 보합세를 보임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49.3%, 강남은 37.6%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10% 이상으로 지속되면서, 강북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7년 1월 들어 50% 이하로 떨어진 이후로 8월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음
- 지난 11월 처음 30% 대를 기록한 강남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월(37.6%)과 동일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8월중 KOSPI 지수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반등

##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크게 상승

- 8월말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전월대비 0.21%p 상승한 5.43%로, 큰 폭의 등락을 보인 후 월후반 이후 재상승함(7월말 5.22%→8.9일 5.32%→8.31일 5.43%)
- 이는 월초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한 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급락하였다가 월후반 들어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 완화,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재상승한 데 기인함

## ■ CD(91일) 유통수익률 크게 상승

- 8월말 CD 유통수익률은 콜금리 인상과 발행물량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0.19%p 상승한 5.29%를 나타냄
- 8월말 현재 콜금리(1일)는 4.98%로, 전월대비 0.22%p 상승함
- 8월 9일 한국은행은 콜금리 운용목표치를 0.25%p 인상된 5.0%로 올림.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가 두달 연속 콜금리를 인상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6년 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

## ■ 장·단기 금리차 소폭 확대

- 8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0.14%p로, 전월에 비하여 소폭 확대됨
- 이는 국고채의 상승과 콜금리 상승에 따른 CD 유통수익률이 폭등에 기인함

## ■ KOSPI 지수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반등

- 월중 KOSPI 지수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 등으로 인해 조정되는 모습을 보임
- 신용경색 우려로 촉발된 글로벌 증시 동반하락, 외국인 순매도 지속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8.17일 1,638.1p) 각국 중앙은행의 노력 등으로 투자심리가 안정되고,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유입 지속(8월중 4.1조원) 등에 힘입어 월후반에 반등함(8.31일 1,841.7p)
- KOSDAQ 지수도 동반 조정을 보였으나(8.17일 673.5p) 월후반 투자심리가 안정되며 상승함(8.31일 775.1p)

■ 원/달러 환율 상승

- 8월중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현상, 외국인 주식순매도 영향 등으로 938원 대로 상승함
- 월초중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미 달러화 강세)이 나타나며 8.17일 5개월만에 최고치인 95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월중반 이후 주요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회복되고 수출내고 자금이 대량 유입되면서 938원대로 하락마감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금 리	국고채(3년)	4.76	5.05	5.17	5.26	5.22	5.43	0.21
	CD(91일물)	4.68	5.00	5.06	5.00	5.10	5.29	0.19
	콜금리(1일)	4.49	4.88	4.56	4.52	4.76	4.98	0.22
	장·단기 금리차 <sup>1)</sup>	0.08	0.05	0.11	0.26	0.12	0.14	0.02
주 가	KOSPI <sup>2)</sup>	1,321.7	1,542.2	1,700.9	1,743.6	1,933.3	1,841.7	-91.6
	KOSDAQ <sup>2)</sup>	550.9	675.9	747.9	778.7	811.5	775.1	-36.4
환율 (W/US\$) <sup>2)</sup>	959.6	930.8	929.9	923.8	919.3	938.3	938.3	19.0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

- 8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3.4조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 주택담보대출은 집담대출을 중심으로 0.6조원 증가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 대출은 학자금대출 취급, 휴가철 카드사용대금 결제 등 계절요인이 가세하면서 2.8조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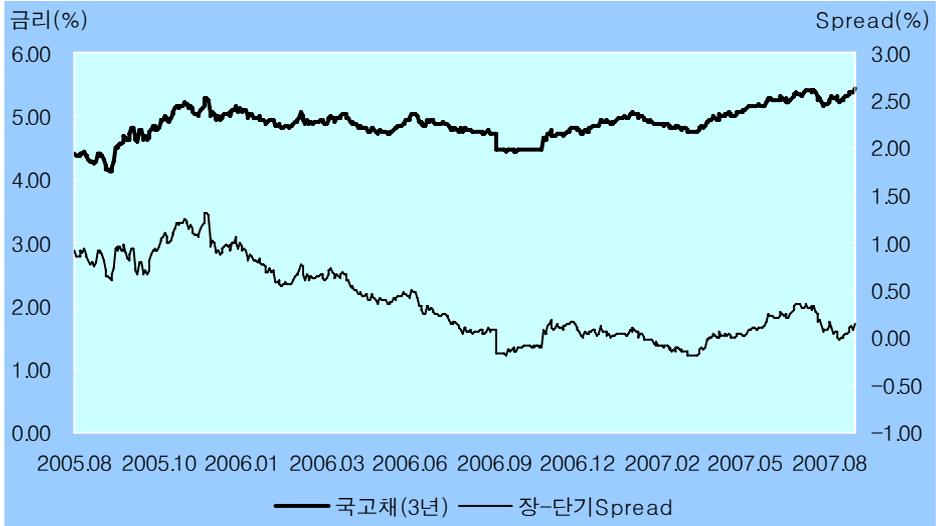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구 분	2006년		2007년				월말잔액		전월비
	연중	8월	5월	6월	7월	8월	2007년		
							7월	8월	
가계대출 <sup>1)</sup>	40.9	2.7	0.2	0.8	1.8	3.4	352.2	355.5	0.9
주택담보대출 <sup>2)</sup>	26.8	1.3	-1.2	0.7	0.1	0.6	217.9	218.5	0.3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4.0	1.6	1.4	0.0	1.6	2.8	132.5	135.3	2.1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 7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액 소폭 축소

- 7월말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9994조 8,154억원으로, 전월대비 12조 1,409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6월 증가액: 15조 3,553억원)이 축소됨
- 7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389조 3,264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2,077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7조 4,930억원)보다 소폭 축소됨

〈표〉 서울시 금융기관<sup>1)</sup>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원)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액
		7월	4월	5월	6월	7월	
전국	예금은행	657,414.5	728,294.8	735,674.4	747,823.0	755,114.0	7,291.0
	비은행기관	202,467.4	227,610.5	231,644.8	234,851.5	239,701.4	4,849.9
	합계	859,881.9	955,905.3	967,319.2	982,674.5	994,815.4	12,140.9
서울	예금은행	275,532.2	301,454.8	304,590.3	310,800.2	314,644.3	3,844.1
	비은행기관	54,488.2	67,710.3	70,035.4	71,318.5	74,682.1	3,363.6
	합계	330,020.4	369,165.1	374,625.7	382,118.7	389,326.4	7,207.7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 7월 기준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감소

- 7월말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56.6%로 전월에 비해 0.6%p 감소함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sup>1)</sup> 추이

(단위 : %, %p)

	2006년	2007년				증감
	7월	4월	5월	6월	7월	
전국	83.6	85.0	84.6	84.4	85.9	1.5
서울	56.5	56.4	56.1	56.0	56.6	0.6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 창 · 업 · 동 · 향 |

### 8월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전국 신설법인 수 증가

- 8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298개로, 전년동월대비 10.1% 증가함
- 업종별로는 전월에 비해 제조업(10.8%)과 건설 및 설비업(1.1%), 서비스업(12.9%) 등 전업종이 증가함
-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64.4%, 제조업 19.9%, 건설 및 설비업 14.9%를 차지함

#### ■ 서울 신설법인 수 증가

- 8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9.5%(144개) 증가한 1,654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8.5%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전월에 비해 제조업(18.2%)과 건설 및 설비업(21.0%), 서비스업(7.3%) 등 전업종이 증가함

#### ■ 서울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증가

-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7.3%(91개) 증가하여 1,344개를 나타냄
- 부문별로 보면 운수업(36.5%), 교육서비스업(28.0%) 등이 증가하고 통신업(-84.6%), 기타서비스업(-20.5%) 등이 감소함
-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전월(79.1%)보다 상승한 81.3%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8월	5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3,904	4,511	4,727	4,596	4,298	394	10.1	-298	-6.5
서울	1,510	1,692	1,781	1,738	1,654	144	9.5	-84	-4.8
서비스업	1,253	1,421	1,413	1,408	1,344	91	7.3	-64	-4.5
제조업	132	138	205	166	156	24	18.2	-10	-6.0
건설 및 설비업	124	132	155	161	150	26	21.0	-11	-6.8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중소기업청

## | 어 · 음 · 부 · 도 · 율 |

8월 서울 부도업체수 전월대비 증가

### ■ 전국 어음부도율 동일

- 8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과 동일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94개로, 전월(214개) 보다 20개 감소하여 2006년중 평균 211개와 비슷함
- 업종별로 제조업(-6개)과 서비스업(-13개) 위주로 감소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1개), 은 증가함

###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8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1월 이후 변동 없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61개) 보다 2개 증가한 63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함
- 지역별 부도업체 수는 서울이 2개 증가하였으나 지방은 22개(153개→131개) 감소하였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국 부도업체 수의 32.5%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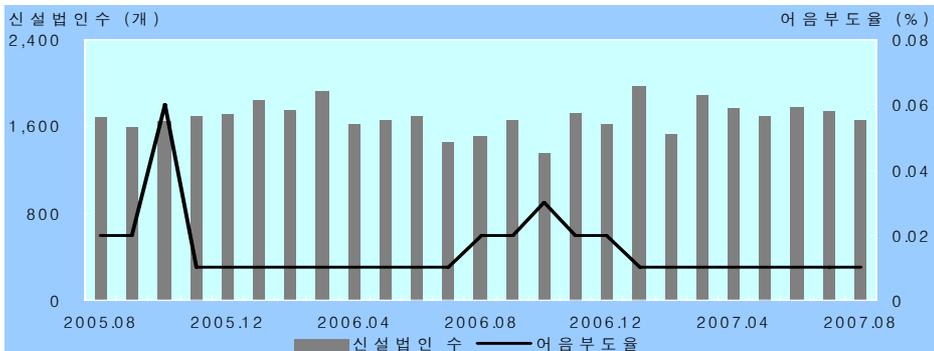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8월	5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2	0.03	0.02	0.02	0	0.0	-0.01	-33.3
	부도업체 수	227	197	173	214	194	-20	-9.3	-33	-14.5
서울	어음부도율	0.02	0.01	0.01	0.01	0.01	0	0.0	-0.01	-50.0
	부도업체 수	85	55	63	61	63	2	3.3	-22	-25.9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자료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 8월 소상공인의 보증 비중 증가세

#### ■ 신용보증공급 감소추세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8월중 1,852건, 31,927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 7.5%, 금액 12.0% 감소함
- 정부의 재보증한도 축소에 따른 제한적 보증공급 및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보증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신용보증 공급이 감소추세를 보임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1,038	3,254	3,111	2,009	2,002	1,852	-150	-7.5	814	78.4
금액	30,848	71,217	57,591	38,007	36,270	31,927	-4,343	-12.0	1,079	3.5
건당평균금액	29.7	21.9	18.5	18.9	18.1	17.2	-0.9	-5.0	-12.5	-42.1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제조업의 비중 2개월 연속 감소

- 8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전월과 비교하여 제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2개월 연속 감소하여 12.4%를 나타낸 반면, 음식숙박업 및 기타업종의 비중(금액기준)이 각각 2.4%p, 2.7%p 증가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62	614	370	410	296	1,852
비율	8.7	33.2	20.0	22.1	16.0	100
금액	3,957	11,164	5,699	7,130	3,977	31,927
비율	12.4	35.0	17.8	22.3	12.5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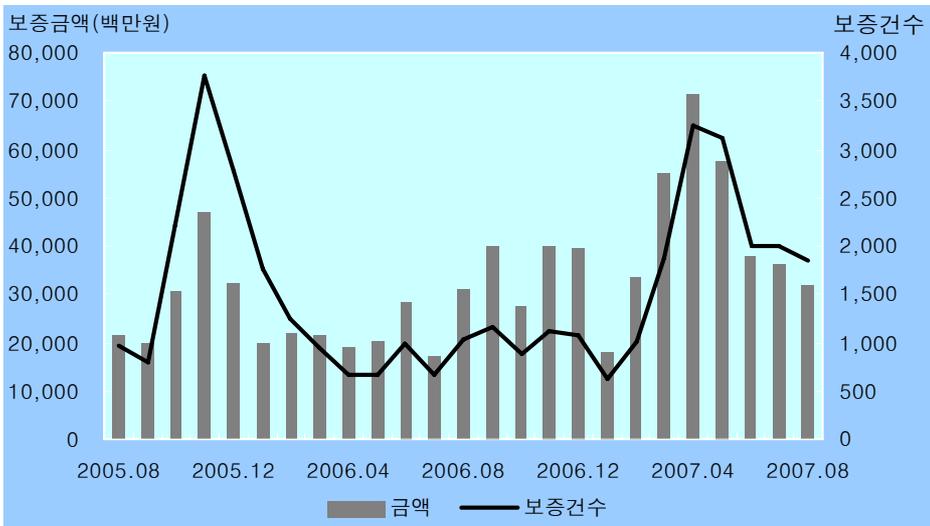
-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2개월 연속하여 증가하여 86.1%에 이르고, 소기업 및 중기업은 보증 건당 평균금액이 감소하고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금 등 고액보증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보증금액 점유비가 하락함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7.06	2007.07	2007.08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1,873	1,893	1,762	-131
	비율	93.2	94.6	95.2	0.6
	금액	29,375	29,601	27,494	-2,107
	비율	77.3	81.6	86.1	4.5
소기업	건수	91	73	69	-4
	비율	4.5	3.6	3.7	0.1
	금액	5,960	4,108	2,993	-1,115
	비율	15.7	11.3	9.4	-1.9
중기업	건수	45	36	21	-15
	비율	2.3	1.8	1.1	-0.7
	금액	2,672	2,561	1,440	-1,121
	비율	7.0	7.1	4.5	-2.6
합계	건수	2,009	2,002	1,852	-150
	비율	100	100	100	0
	금액	38,007	36,270	31,927	-4,343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 수 · 출 · 입 · 동 · 향 |

## 8월 서울 수출 증가세 확대, 수입 증가세 다소 둔화

## ■ 전국 수출 건실한 증가세 지속

- 8월 전국의 수출은 310억 9,610만불로, 전년동월대비 14.0% 증가함(7월 17.3%→8월 14.0%)
- 품목별로는 EU 및 중동지역 등의 수요 호조에 힘입어 자동차(43.0%), 일반기계(38.5%), 철강(30.3%), 반도체(14.8%)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임

## ■ 전국 수입 증가세 소폭 둔화

- 8월 전국의 수입은 296억 7,420만불로, 전년동월대비 9.8% 증가하여 증가세가 소폭 둔화됨(7월 14.5%→8월 9.8%)
- 용도별로는 소비재(수입비중 10.7%)가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곡물 및 내구소비재(승용차, 가전제품 등)가 각각 39.2%와 20.6%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19.5%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 서울 수출 증가세 확대

- 8월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1% 증가한 23억 3,720만불로, 증가세가 확대됨
-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6.5%), 의류(-4.7%) 등을 제외하고 컴퓨터(55.7%), 플라스틱제품(48.4%), 반도체(31.8%) 등 대부분이 증가함
- 국가별로는 중국(14.5%), 미국(4.8%), 베트남(65.4%) 등이 증가하고 일본(-10.2%) 등은 감소함

## ■ 서울 수입 증가세 다소 둔화

- 8월 서울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4.5% 증가한 59억 7,590만불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석유제품(-12.0%), 반도체(-2.9%) 등을 제외하고 기초유분(128.9), 자동차(25.9%), 전자응용기기(21.1%) 등 대부분이 증가함
- 국가별로는 중국(21.6%), 미국(1.1%), 일본(17.8%) 등이 증가하고 대만(-1.3%) 등은 감소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8월	4월	5월	6월	7월p	8월p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7,287.2	29,948.0	31,050.6	32,002.3	30,228.2	31,096.1	3,808.9	14.0	867.9	2.9
	수입	27,029.5	29,829.7	29,767.3	28,454.6	29,198.1	29,674.2	2,644.7	9.8	476.1	1.6
서울	수출	2,047.8	2,244.7	2,284.5	2,369.7	2,284.5	2,337.2	289.4	14.1	52.7	2.3
	수입	5,220.1	5,902.5	5,980.0	5,769.8	5,603.3	5,975.9	755.8	14.5	372.6	6.6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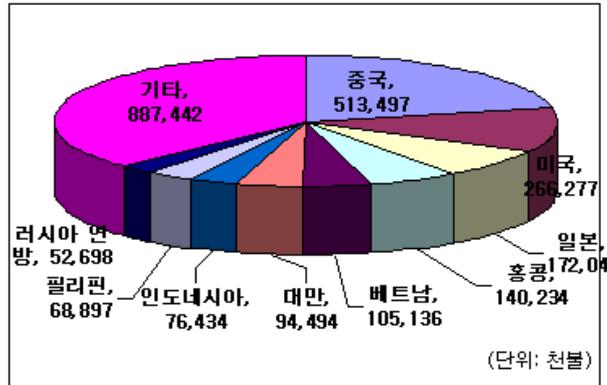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7년 8월		2006년 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2,377,158	16.1	2,047,792	7.5
1	반도체	201,645	31.8	153,017	27.7
2	편직물	165,522	11.5	148,425	3.2
3	의류	123,005	-4.7	129,027	-11.1
4	합성수지	120,186	24.7	96,418	36.4
5	고무제품	115,005	26	91,248	30.6
6	컴퓨터	87,050	55.7	55,919	-35.4
7	자동차부품	83,558	18.8	70,361	26.8
8	플라스틱 제품	79,776	48.4	53,768	-5.2
9	무선통신기기	74,920	-6.5	80,150	-10.4
10	인조장섬유직물	70,625	4.6	67,49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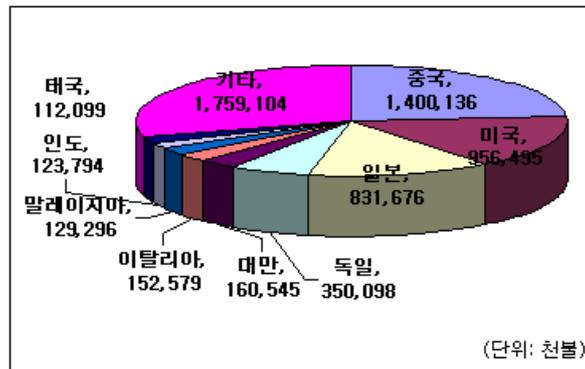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7년 8월		2006년 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5,975,822	14.5	5,220,094	17.3
1	항공기및부품	398,485	6	375,862	64.8
2	반도체	374,615	-2.9	385,636	15.6
3	컴퓨터	368,313	10	334,845	-23.4
4	의류	359,762	15.7	310,981	82.2
5	자동차	213,248	25.9	169,340	-25.4
6	석유제품	165,209	-12	187,716	50.2
7	기초유분	131,061	128.9	57,267	-4.1
8	육류	129,084	18	109,377	22.5
9	전자응용기기	109,618	21.1	90,506	-30
10	동제품	104,862	13.5	92,371	139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